



라방추어의 오너 스테판 아세오

두 개의 트렁크, 한손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부인과 함께 스테판 아세오가 도착한 곳은 캘리포니아 중부해안 지역의 파소 노블레스였다. “내가 파소 노블레스에 정착했던 때가 1997년입니다. 그때는 그곳이 허허벌판이었고 와이너리도 약 32곳 정도였는데 현재는 300곳으로 늘어났어요. 우리의 포도밭도 127ac이니 참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라며 서두를 열었다. 그는 원래 프랑스인으로 부르고뉴에서 와인 양조학을 공부한 뒤 1982년부터 보르도의 도메인 고르데이악을 구입하며 와인 생산을 시작하였다. 보르도에서 지속적인 와인 메이킹을 하며 프랑스의 전형적인 AOC 법규를 떠나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을 와인에 담고 싶어졌던 그는 세계의 와인산지에 눈을 돌리게 된다. 그가 선택한 곳은 주위의 친지들도 반대했던 캘리포니아의 파소 노블레스였다. 그때 그가 이곳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찌되었을까? 이런 기막힌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의 와인도 시음해 볼 수 없었으리라. 그는 캘리포니아의 나파나 소노마에서 시행하고 있던 보르도 블렌딩을 과감히 버리고 그의 말을 빌리자면 “Crazy Blending”을 선택하였다. 사실 그가 정착한 파소 노블레스의 서쪽 구릉지대는 석회암, 퇴적물 등이 혼합된 토양에 진흙, 석영 등이 아래층으로 갈수록 많이 분포되어 있고 기후 또한 해안가와 근접하여 있어 맑고 따뜻한 태양과 신선하고 서늘한 밤의 일교차가 포도를 재배하기에는 최상의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다. 모두들 선택을 꺼려했던 아니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이 지역을 선택한 그의 모험기는 두고두고 회자될 만하다. 와인은 그의 모험의 기질을 담은 시라와, 까베르네 소비뇽, 뽀띠 베르도의 미친 블렌딩으로 각각의 품종의 개성을 살리되 묘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맛을 끌어내었다. “앞으로 내가 어디로 이동할지 나도 잘 모르죠. 난 또 새로운 산지가 눈에 들어온다면 즉시 가방을 쌀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라고 장담하는 스테판 아세오에게 당분간은 참아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은 라방추어의 와인을 충분히 즐길 시기이기 때문이다. \\\

수입처 금양인터내셔널 문의 02-2109-9200

L'AVENTURE

파소 노블레스의 모험

탄탄대로의 길을 마다하고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전과 모험을 좋아하는 그들이 있어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놀라워한다. 파소 노블레스에서 온 라방추어의 스테판 아세오(Stephan Asseo)도 그들 중 하나였다. 글 이정은 사진 양민우



- 1 L'Avventure côte côte
- 2 L'Avventure Estate cuvee
- 3 L'Avventure Optimus